

1. 인구

1-1 세대 및 인구

1-2 성별 및 연령별 인구

1-3 인구 자연증가율 및 인구성장률

1-4 연령별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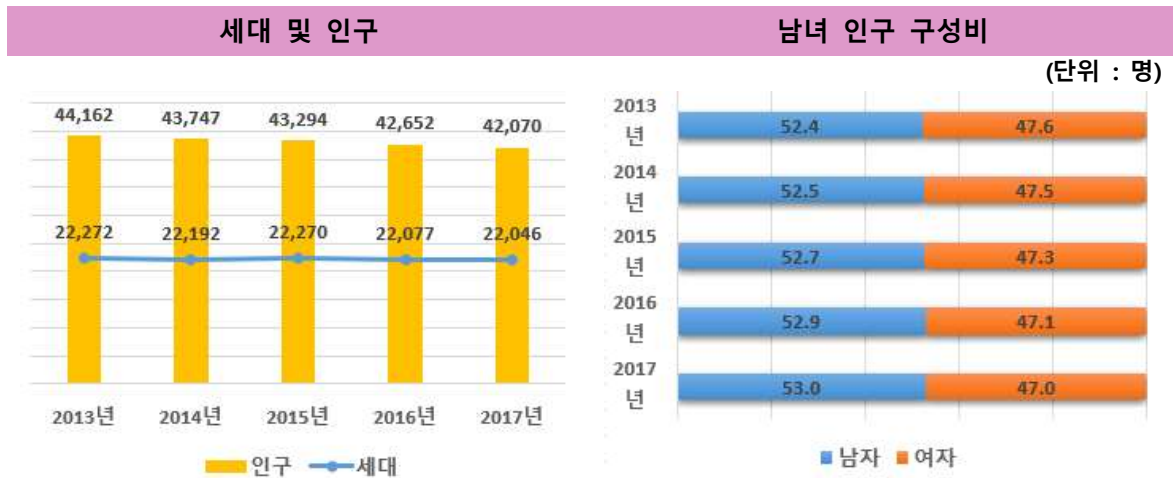
1-5 인구이동

1-6 성별 국적별 외국인 인구

1 - 1. 신안군 세대 및 인구

2017년 주민등록인구는 42,070명, 세대수는 22,046세대

- 2017년 신안군 주민등록인구는 42,070명으로, 2013년 대비 2,092명(4.74%) 감소, 2016년 대비 582명(2.64%) 감소, 세대수는 22,046세대로 2013년 대비 226세대(1.01%) 감소, 2016년 대비 31세대(0.14%) 감소
 - 남자는 22,031명으로 2013년 대비 1,114명(5.55%) 감소, 여자는 19,769명으로 1,248명(5.94%) 감소함
 - 신안군민의 주민등록인구는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대 수도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남녀 인구 구성비」는 남자 53.0%, 여자 47.0%, 성비 113으로 남자가 많은 남초사회 형태임
 - ※ 성비 :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



<표 1-1> 세대 및 인구 (단위 : 세대, 명, %)

구 분	세대	인구	인구		구성비	구성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13년	22,272	44,162	23,145	21,017	100.0	52.4	47.6
2014년	22,192	43,747	22,969	20,778	100.0	52.5	47.5
2015년	22,270	43,294	22,825	20,469	100.0	52.7	47.3
2016년	22,077	42,652	22,555	20,097	100.0	52.9	47.1
2017년	22,046	42,070	22,301	19,769	100.0	53.0	47.0

자료: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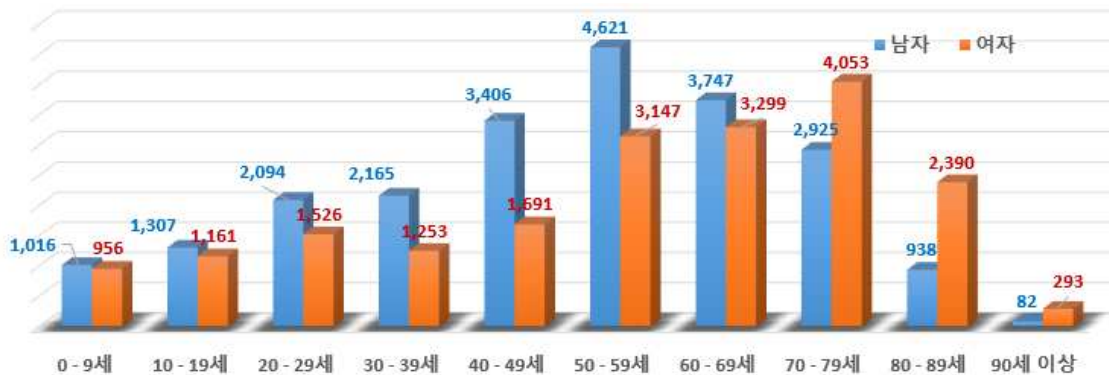
1 - 2. 성별 및 연령별 인구

50대 이상 연령이 전체인구의 60.6%

- 2017년 신안군의 연령별 인구는 「0~9세」 1,972명, 「10~19세」 2,468명, 「20~29세」 3,620명, 「30~39세」 3,418명, 「40~49세」 5,097명, 「50~59세」 7,768명, 「60~69세」 7,046명, 「70~79세」 6,978명, 「80세 이상」 3,703명임
- 구성비는 50대가 18.5%로 가장 많고 60대(16.7%), 70대(16.6%), 40대(12.1%)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연령별로 50대 이하는 남자(9,988명, 44.8%)가 여자(6,587, 33.3%) 많으며, 60대 이상은 남자(7,692명, 55.2%)가 여자(10,035명, 66.7%)로 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성별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표 1-2> 세대 및 인구 성별 및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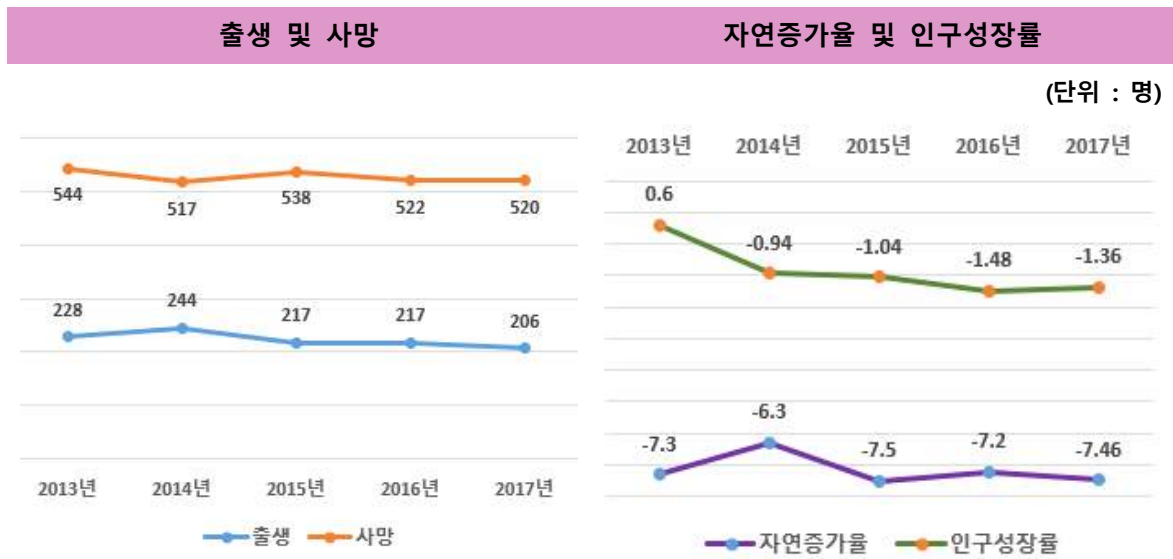
구 분	인구	구성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17년	42,070	22,301	19,769	100.0	
0~9세	1,972	1,016	956	4.7	
10~19세	2,468	1,307	1,161	5.9	
20~29세	3,620	2,094	1,526	8.6	
30~39세	3,418	2,165	1,253	8.1	
40~49세	5,097	3,406	1,691	12.1	
50~59세	7,768	4,621	3,147	18.5	
60~69세	7,046	3,747	3,299	16.7	
70~79세	6,978	2,925	4,053	16.6	
80~89세	3,328	938	2,390	7.9	
90세 이상	375	82	293	0.9	

자료: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1 - 3. 인구 자연증가율 및 인구성장률

자연증가율 감소와 마이너스 인구성장률로 인한 인구 감소세

- 2017년 출생아수는 2016년(217명) 보다 11명 감소한 206명이며, 2013년 대비 22명 감소
 - 자연증가율은 인구 천명당 -7.46명으로 2016년(-7.2명)보다 감소함
 - 주민등록인구 기준 인구성장률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임
- 사망자수는 2016년(522명) 보다 2명 감소한 520명이며, 2013년 대비 24명 감소



<표 1-3> 인구 자연증가율 및 인구성장률

(단위 : 명, %)

구 분	인구	출생	사망	자연증가율	인구성장률
2013년	44,162	228	544	-7.30	0.60
2014년	43,747	244	517	-6.30	-0.94
2015년	43,294	217	538	-7.50	-1.04
2016년	42,652	217	522	-7.20	-1.48
2017년	42,070	206	520	-7.46	-1.36

자료: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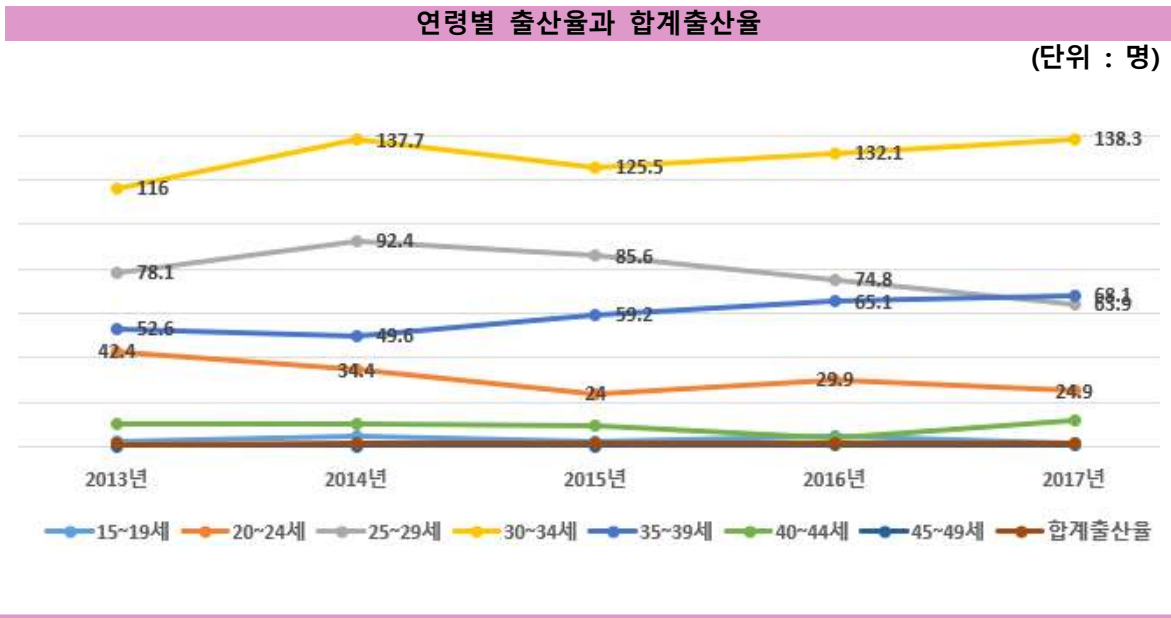
주) 자연증가율=조출생률-조사망률(천명당)

주) 인구성장률=[(해당연도주민등록인구-전년도주민등록인구)/전년도주민등록인구]×100, 전년비임

1 - 4.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은 1.595명으로 전년(1.573명) 보다 0.02명 감소

- 합계출산율은 2017년 1.595명으로 2016년(1.573명) 대비 0.02명 감소
-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모(母)의 연령은 30대 초반(138.3명)으로 나타남
- 연령별 출산율은 2016년 대비 30대 초반(132.1명→138.3명), 40대 초반(4.0명→11.9명)은 상승하고, 15~19세대 (4.9명→1.3명), 20대 초반 (29.9명→24.9명), 20대 후반 (74.8명→63.9명)은 감소



<표 1-4> 연령별 출산율 (단위 :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명, 가임여성 1명당 명)

구 분	모의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13년	2.2	42.4	78.1	116.0	52.6	10.0	0.0	1.510
2014년	4.5	34.4	92.4	137.7	49.6	10.1	0.0	1.651
2015년	2.3	24.0	85.6	125.5	59.2	9.5	0.0	1.539
2016년	4.9	29.9	74.8	132.1	65.1	4.0	1.0	1.573
2017년	1.3	24.9	63.9	138.3	68.1	11.9	1.0	1.595

자료: 통계청, KOSIS

주) 연령별 출산율(ASFR)=(모의연령별출생아수/당해연령별여자인구)×1000 ; 해당연령 여자인구 천명당 명

주) 합계출산율(TFR)= $\sum_{x=15}^{49} ASFR_x$: 가임기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

1 - 5. 인구가동 및 순이동률

2017년 '전입' 인구 전년 대비 270명 감소, '전출'인구 358명 감소

- 2017년 전입인구는 4,014명으로 2016년 4,284명 대비 270명 감소하였고, 전출인구는 4,261명으로 2016년 4,619명 대비 358명 감소함
- 2017년 순이동은 247명 순유출로, 2014년 이후 순유출이 지속됨



<표 1-5> 인구가동 및 순이동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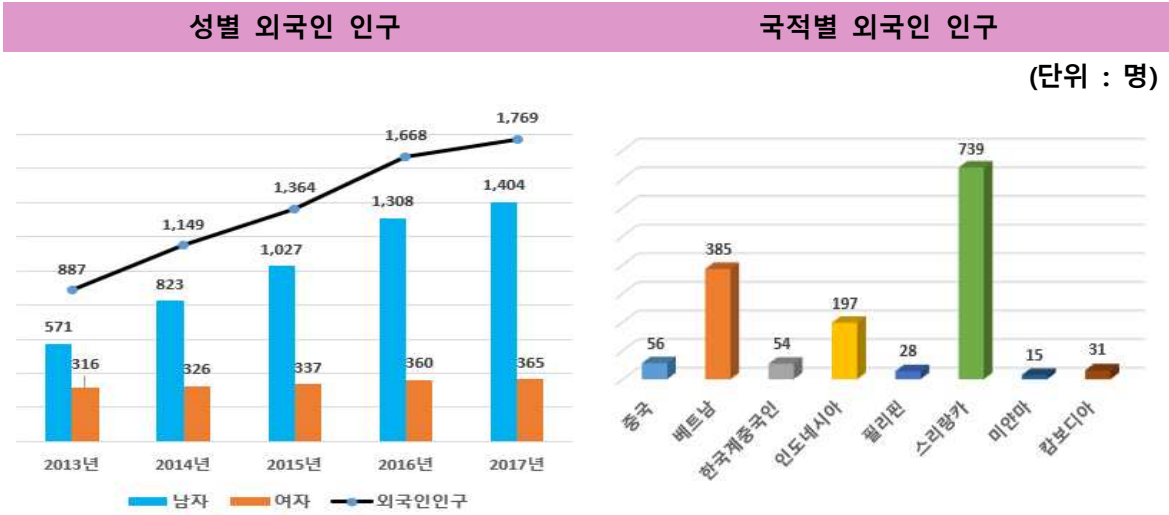
구 분	전입		전출		순이동	
	인구	이동률	인구	이동률	인구	이동률
2013년	5,532	12.5	4,985	11.3	547	1.2
2014년	5,217	11.9	5,358	12.2	-141	-0.3
2015년	4,658	10.8	4,824	11.1	-166	-0.4
2016년	4,284	10.0	4,619	10.8	-335	-0.8
2017년	4,014	9.5	4,261	10.1	-247	-0.6

자료: 통계청, KOSIS 「국내인구가동통계연보」

1 - 6. 성별 및 국적별 외국인 인구

외국인 인구는 767명으로 2016년 대비 44명 증가

- 2017년 외국인 인구는 767명으로 남자(530명)가 여자(237명)보다 293명 많음
 - 2016년(723명) 대비 44명 증가, 성별로 남자 52명 증가, 여자 8명 감소
- 국적별로
 - 베트남 228명, 캄보디아 125명, 인도네시아 106명, 스리랑카 100명, 중국 50명, 미얀마 41명, 필리핀 26명 순임



<표 1-6> 성별 국적별 외국인 인구 (단위 : 명)

구 분	외국인 인구		국적별											
	남자	여자	중국	베트남	한국계 중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태국	기타	
2013년	512	252	65	201	50	58	37	11	1	41	1	20	27	
2014년	631	257	69	236	50	83	31	23	12	70	4	24	29	
2015년	726	258	55	232	37	97	22	65	0	137	7	21	53	
2016년	723	245	50	229	26	91	23	91	28	109	15	20	41	
2017년	767	237	50	228	19	106	26	100	41	125	15	13	44	

자료: 통계청, 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기본 현황(인구부문) 정책적 제언

- ▶ 신안군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대 수도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출산율의 감소와 사망률의 감소는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연령별 인구 구조는 50~60, 70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51.8%), 남자 50.6% 여자 53.1%로 나타나고 있음.
- ▶ 신안군 인구의 순이동은 2014년 약 141명의 순유출이 이후로 4년간 2017까지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연증가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 신안군의 인구현황은 전국 대부분의 농촌지자체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 신안군의 인구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는 기존의 출산·보육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정주여건 개선, 의료,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출방지 및 인구유입의 인구정책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신안군의 정책인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청년‘가업 잇기’지원을 통해 농어촌을 책임질 젊은 인력을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천사대교가 개통되면 이미 연도교로 연결된 섬들에 더해 신안지역 섬들의 대부분이 육지와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것임. 그러나 장점도 많이 있으나 대교 교통 후 농촌사회 공동화 우려도 커지고 있음. 대교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 분석을 통하여 주거와 일터가 분리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의 교육 때문에 타 시도로 이탈하지 않도록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여야 함.
 - 젊은 사람들의 귀농 귀어를 지원하기 위한 신안군만의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임